

# **F.B.I EXECUTIVE REPORT**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## Contents July 3, 2013

### Biweekly Report

- 2** Taking to the Streets  
김영은, from The Economist
- 5** China's Economic Policy Factory: The NDRC  
김윤희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7** Corporate Tax Avoidance: Can the System Be Fixed?  
문소정, from Knowledge@Wharton
- 9**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rolls (The Patent Kind)  
윤수정, from Wired
- 11** Unpaid Internship? Some Colleges Pick Up the Tab  
이상훈, from The Wall Street Journal

### Special Report

- 14** Yahoo Continues Its Search for a New Identity  
최진영, from Knowledge@Wharton
- 18** Free Exchange: Shocks and Ores  
조창우, from The Economist

## Taking to the Streets

\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6.22\)](#)

\* 요약자: 김영은 (kye9242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브라질, 가두시위, 요금 인상

“브라질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가적 가두시위”



□ 버스요금의 20센타보(약 90센트) 인상으로 6월 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된 가두시위는 빠른 속도로 번져 1992년 이후 가장 큰 국가적 시위로 확대됨

- 가두시위 초기에 브라질 정부의 무력 탄압으로 시위가 더욱 확산됨
  - 경찰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가두시위를 섬광탄이나 고무총탄, 최루 가스 등으로 무력 진압함
  - 시민들과 취재진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언론의 강한 비판이 일어남
- 시위가 확산되어 18일 하루 만에 연방 수도인 브라질리아를 포함한 전국의 12개 주도(州都)에서 약 25만 명이 가두시위에 참여함
  - 이전의 시위보다 여성, 가족, 중년인구들의 참여가 증가함

□ **버스요금 인상 문제 이외에도 정치 문제와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사항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개선을 요구함**


- 브라질의 고질적인 정치 부패, 물가 상승과 부실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됨
  - 강력 범죄와 정치 부패는 고질적이었으며,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강경한 처벌이 불만을 야기함
  - 브라질 국민들은 선진국의 평균 비율(GDP의 36%)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그에 못 미치는 복지 혜택을 받음
- 월드컵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규탄하며 '제1세계의 경기장, 제3세계의 학교와 병원'이라고 비유
- 시위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광범위해서 단기간 내에 그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움

□ **브라질의 가두시위가 이 시점에 발발한 원인은 월드컵 개최로 인한 세계의 이목 집중과 인플레이션에 있음**

- 현재 세계 각국이 내년에 열릴 월드컵을 준비하며 브라질을 지켜보고 있음
  - 다음 해 월드컵의 토너먼트 구성을 위한 '2013 FIFA 컨페더레이션스 컵 (Confederations Cup)'이 이미 지난 6월 15일 경기를 시작함
- 무분별한 신용 거래로 인해 브라질 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초과 지출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급등
  - 심지어 버스 요금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어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

□ **브라질 정부가 뒤늦게 버스 요금 인상을 취소하고 가두시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궁극적 해결책이 아님**

- 6월 19일에 상파울루를 포함한 브라질 곳곳에서 버스 요금 인상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함
- 딜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시위대가 브라질 민주주의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
  - 새로운 중산층들에게 '더 요구하고, 더 많은 권리를 취하라'라고 격려

- 그러나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타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
  - 가두시위대는 그들이 지불한 세금만큼의 제대로 된 공공 서비스 보상을 요구함 

# **China's Economic Policy Factory: The NDRC**

\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6.20\)](#)

\* 요약자: 김윤호 (yhkim3937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중국, NDRC

## **“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(NDRC)의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전망”**

□ 중국에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(NDRC)는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

- NDRC는 휘발유 가격과 택시 요금 결정, 플라스틱 가방 사용 규제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
- 그들이 가진 권한을 기반으로 때로는 리커창 총리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

□ 이와 같은 형태의 거대 행정부처는 일찍이 탄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

- 1952년 마오쩌둥과 다른 최고 정당 관계자들이 국가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위임통치를 시작했으며, 경제 성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킴
- 1998년 그들은 국가발전기획위원회로 개칭하고 영역을 확장했으며, 올해 초 인구 목표를 설정하는 중대한 책임까지 안게 됨

□ 오늘날 NDRC는 고용, 산업 관련 결정권한을 바탕으로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

- 24개 이상 되는 부서에서 3만 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NDRC의 본부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음
- 그들은 거대한 기간 시설과 제조업 계획을 승인하는 일을 하며, 주요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필수품들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
- 명백히 모든 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

□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경제에 기반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역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

## 존재

- 경제학자, 사업가, 일반 대중들의 개혁적 성향이 커지면서, 그들은 NDRC가 중국의 계획 경제로부터 남겨진 유산이라고 평가
-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자인 장 웨이잉(Zhang Weiying)은 현재 과잉 생산능력에 직면한 산업들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는 NDRC를 비난함

### □ NDRC의 날개가 이제는 한 풀 꺾인 것으로 보는 견해 역시 등장함

- 리커창 총리가 그들이 입안한 도시화 계획을 보고, 개혁 지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음
- NDRC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계획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기 시작했다고 뉴스 매체들이 보도

### □ 그들이 지금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

- 우려에도 불구하고, 새로운 계획을 승인하는 일에 있어 책임 있는 주도적인 기관으로써 NDRC는 점차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
- 어떤 국가라도 한 때 NDRC와 같은 관료주의 체제를 사용했다면, 그러한 체제를 무 자르듯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**FBI**

# Corporate Tax Avoidance: Can the System Be Fixed?

\* 기사출처: [Knowledge@Wharton \(2013.06.19\)](#)

\* 요약자: 문소정 (wooltoto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애플, 탈세

## “애플의 탈세 꼼수, 이대로 괜찮은가”

### □ 애플은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수십 조 원의 탈세 의혹을 받음

- 지난 4년간 4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미납한 의혹이 제기 됨
- 미국의 법인세율은 35%이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애플은 실질세율로 따질 때 수익의 9.8%만 납세함

### □ 애플은 허술한 아일랜드 법인세 정책을 악용하여 해외 자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절세 꼼수 행태를 벌임

- 법인 등록이 쉽고 세율이 0%에 가까운 조세피난처에 자회사 법인을 만들
  - 버진 아일랜드, 케이맨 제도, 버뮤다, 라부안 등 주로 영세율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의 나라가 조세피난처로 이용됨
- ‘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(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) 전략’을 이용하여 절세함
  - 이 방법은 아일랜드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쉽게 내주고 이전가격을 과세하지 않는 점을 활용한 것
  - 네덜란드는 판매세가 0.1%~0.2%에 불과하며 아일랜드와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맺어 애플식 탈세 전략에 적합함

####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

‘아일랜드 빵 두 개 사이에 네덜란드산 스테이크를 끼운 샌드위치’라는 뜻으로,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소득세율이 유럽 내 최저 수준인 아일랜드와 판매세가 낮은 네덜란드에 각각 지사를 설립해 놓고 수익을 서로 주고받는 복잡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게 내는 수법  
출처: 문화일보.

### □ 그러나 팀 쿡 CEO는 애플의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함




- 애플은 미국에서 가장 큰 납세 기업이며 그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
-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역외탈세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
  -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사업을 하거나 인수합병 등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이용 할 수 있음
- 애플의 절세 전략은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 다국적 기업들도 이용함

□ **EU는 애플식 절세 꼼수로 인해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우려**

- 현재 유럽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탈세액은 약 1조 달러로 추정됨
- EU 관련법규에서 악용 방지 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제 조항의 근본적인 허점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

□ **기업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미 세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함**

- 미국 법인소득세율을 낮추고 동시에 전세계소득납세체제(worldwide tax system)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됨
  -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미국 정부에게 법인세를 내야 하는 전세계소득납세체제는 기업이 현금을 해외에 보유하려는 현상을 심화시킴
  - 현재 애플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1,450억 달러 가운데 1,023억 달러를 해외에 보유하고 있음
- 세율의 인하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미국 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됨 

# **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Trolls (The Patent Kind)**

\* 기사출처: [Wired \(2013.06.26\)](#)

\* 요약자: 윤수정 (soojung92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특허권, PAE

## **“특허 괴물의 소송 남용을 규제할 법적 조치는”**

□ **특허 괴물(Patent Troll)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, 특허소송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기업들을 일컫는 말**

- 이들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매입한 뒤,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로 이익을 얻음
- 이전의 특허관리전문업체(non-practicing entities, NPE) 개념에서 소송분쟁 부문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거래전문업체(patent assertion entities, PAE) 개념이 등장

□ **PAE의 타깃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전반과 공공기업 및 비정부기구로 확산**

- 2012년에는 기술 개발 위주의 기업보다 그 외의 기업에서 특허권 분쟁이 더 많았음
- 현재는 기술을 사용하는 유통업자, 광고업자, 운송업자, 자동차 업체, 관련 영세 기업까지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판단
-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 전반에서 특허권 남용의 위협도 증가

□ **꾸준히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특허 괴물이 등장하여, 최근 관련 법률과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보임**

- PAE 기업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경우 분기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소송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공격적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
- 무분별한 특허 관련 소송으로 시장 균형에 문제가 생겨 최근 미국 의회는 이를

방지하기 위한 법안 5개를 제출했고 대통령도 개선책을 제안

□ **최근 특허 분쟁 관련 규제에서 법정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원고 측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개선책으로 제시됨**

- 특허 분쟁 비용의 90%는 특허권 법에서 문제 사항을 찾는데 소비되는데, 그것을 막기 위해 비핵심적인 정보 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도록 개정
- 원고 측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PAE 기업일 때 원고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, 소송 시 원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

□ **특허 소송법이 스마트폰 전쟁과 같은 대규모 소송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, 소송 가이드라인은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것**

- 미국 대통령의 법률안 제안에 따르면 소송에 관계되는 특허권의 숫자를 제한하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은 소송의 범위에서 제거할 예정
- 제품 불매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규제할 수 있고,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생길 시 전문가의 권한이 개입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

□ **이 외에도 중간 기술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기본적 기술에 관한 소송을 규제하는 방법이 추진되면 소송의 남용이 방지될 것**

- 기술의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중간 시행자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해 소송을 줄일 것
-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술에 대한 소송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천 개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 본질적 성격의 특허권 남용 규제가 중요 **FBI**

## **Unpaid Internship? Some Colleges Pick Up the Tab**

\* 기사출처: [The Wall Street Journal \(2013.06.19\)](#)

\* 요약자: 이상훈 (hooney704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무급 인턴, 대학교

### **“무급 인턴 학생을 지원하는 대학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”**

#### **□ 대학교들이 인턴 근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증대시킨 것이 최근 인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**

- 대학들은 이전부터 비영리 혹은 예술 분야에서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봉급을 지원함
- 하지만 이제는 뉴욕의 자산회사, 워싱턴 D.C.의 로비 회사, 그리고 심지어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영리 기업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도 봉급 지원을 시작함
- 영리 기업에서 하계 무급 인턴을 수행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무급 인턴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됨

#### **□ 대학에서 무급 인턴 학생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 원인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대학교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기 때문**

- 급증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, 학문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취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해짐
-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학생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온전히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대학 취업센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음

#### **□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기업이 무급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**

- 지난주 연방법원에서 영화 스튜디오의 무급 인턴 프로그램이 노동법에 위반 된다는 판결이 나옴
- 리치몬드 대학교 역시 무급 연구와 비영리 활동을 지원해왔지만, 올해부터 영리

기업의 무급 인턴근무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함

- 영리 기업의 범위는 뉴욕의 시립병원부터 시작해 크리스티 옥션하우스와 같이 큰 이윤을 남기는 기업까지 다양함

□ **한편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급 인턴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인턴 자리를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계속 지원**

- 오하이오주의 디파이언스 대학교에서는 지역 고용주들에게 대학이 학생들의 최소 인건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업계에서의 인턴 자리를 학생들에게 제공
- 해밀턴 대학은 학생들 스스로 인턴십을 찾아야 하며, 희망하면 대학 취업서비스 센터의 도움을 받고 인턴십 자리를 확보한 후에 경비를 신청할 수 있음
  - 올해 경비 신청은 187건으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, 장학금 66개의 평균 액수는 \$2,400에 달함
- 많은 기업들은 대학 기금이 없었더라도 학생들을 고용했을 거라고 말하지만, 대학측의 지원금이 학생들을 고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


□ **전문가들은 기업이 인턴십을 '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'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, 급여 제공이 의무화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**

- '청춘 착취자들(Intern Nation)'의 저자인 로스 필린은 대학이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는 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언급
- 하지만 자칫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불법 인턴십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설명함
- 미시간 주립대학교 대학고용연구소의 소장 필립 가드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제 위기로 인해 고용주의 부도덕성이 증가했다고 주장
  - 기업운영에서 중요한 업무도 무급인턴에게 맡기는 등 부도덕한 경영실태가 드러남

□ **연방법에는 무급 인턴의 범위를 규정 짓는 기준이 있으며 무급 인턴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임에도, 대학들은 무급 인턴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속할 전망**

- 연방법에 의하면 무급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

주는 인턴의 업무에서 즉각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

- 올해 초 뉴욕대학교 학생들은 취업서비스센터가 무급 인턴십 광고를 올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진행함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무급 인턴 광고를 올리는 기존의 관행을 중단할 뜻이 없어 보임
  -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교의 100%가 정부나 비영리 기관이 요청하는 무급 노동을 환영함
  - 84%의 대학교들은 영리 기업들에게도 무급 인턴을 허가함 

## Yahoo Continues Its Search for a New Identity

\* 기사출처: [Knowledge@Wharton \(2013.06.19\)](#)

\* 요약자: 최진영 (skyss92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야후, 메이어

“새로운 CEO 메이어를 통해 기존의 경쟁력을 되찾고 있는 야후”

### □ 야후는 새로운 CEO로 구글의 전 부사장인 마리사 메이어(Marissa Mayer)를 임명

- 1년 전, 이러한 야후의 발표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과 회의적인 반응이 엇갈리며 큰 논란으로 심화
- 1년 사이 야후의 주식은 70%이상 상승했고, 여러 기업에 대한 인수를 적극적으로 진행
  - 올해 4월에는 뉴스 자동 요약 어플인 섬리(Summly)를 3000만 달러에 인수
- 메이어의 취임 이후 야후가 서서히 더 강력한 인터넷 포털로 복귀하고 있다고 평가됨

### □ 메이어는 21세기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최고의 여성임원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인물

- 온라인 경매사이트 채리티버즈(Charitybuzz)에 따르면 '메이어 CEO와의 점심'에 대한 입찰가격이 경매 시작 후 사흘만에 6만7500달러(약 7,662만원)를 초과함
- 메이어의 학력과 구글에서의 경력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그녀에 대한 신용이 높음
  - 메이어는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 석사 출신으로 재학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를 했으며 일리노이 공대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음
  - 구글 최초의 여성 개발자로 입사, G메일과 구글 뉴스, 구글 이미지 검색 등 주요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감독함

### □ 한편 최근 야후의 전반적인 수익 성과는 많이 부진한 상태

- 2012년 4분기에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증가를 기록했지만,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이라고 예상됨
- 야후의 2013년 1분기 매출과 판매 건수, 광고단가를 포함한 재무 성과는 매우 저조
  - 검색광고 매출이 10% 감소했고,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11%, 판매 건수는 7%, 광고단가도 2% 하락함

#### □ 메이어는 야후를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야후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함

- 지난 1년간 '모바일 기업'으로서 야후의 정체성과 비전을 확립
  -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분석한 후, 각 활동에 최적화된 한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'개별화 전략'을 추진
- 이전의 포털 사이트 이미지를 지양하고 서비스 중심의 개별적인 전략을 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

#### □ 또한 야후의 기존 기업 문화를 바꾸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직원과 서비스 이용자 모두의 효용을 증대

- 직원들이 최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고 회사 내에서 무료 음식을 제공
-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 보여주는 '뉴스피드'를 전면에 내세우고 어지럽게 배치된 광고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성공함
-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야후 이용자들은 야후의 모든 콘텐츠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됨

#### □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, 각종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

- 메이어가 집중하고 있는 네 가지 중심 서비스는 야후 메일, 소셜 네트워크(텀블러), 이미지(폴리커), 그리고 검색 엔진



- 메이어는 플리커의 기존 유료 서비스를 종료시키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추가적으로 동영상 서비스에도 집중할 전망
  - 동영상 서비스의 사용자 수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함
  -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훌루(Hulu)의 인수 경쟁에도 참여하고 있음
- 문어발식 포털 전략을 지양하고, 주력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나누어 주력 서비스를 집중 양성하는 전략에 무게를 둘 예정

#### □ 메이어는 각종 기업의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다시금 야후를 거대포털화 시키려 함


- 야후는 텀블러를 11억 달러, 한화 가치로 약 1조 23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해 인수함
  - 텀블러는 월간 순 방문자 수가 3억 명을 웃돌며, 초당 900개의 포스트가 업데이트 되는 인기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
- 메이어는 CEO로 부임한지 1년만에 스탬프드(Stamped)를 시작으로 온디에어(On the Air)와 어라이크(Alike) 등 모바일 분야 벤처 기업 7곳을 인수함
- 야후는 M&A를 통해 현재 IT기업의 트렌드 및 화두인 모바일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

#### □ 야후에서 메이어의 행적에서는 과거 구글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구글과 유사한 요소가 많이 발견됨

- 야후 검색 엔진의 디자인은 검색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간소화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구글의 방식과 유사
- 야후는 구글 사원 출신 CEO를 영입함으로써 맞춤형 검색이라는 전략까지 함께 영입하게 된 셈

#### □ 메이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야후는 다음 분기에 긍정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
-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 후, 전체 사용률이 25%이상 증가했으며, iOS와 안드로이드의 야후 메일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50%이상 늘어남

- 또한 야후의 검색량 증가와 함께 지난 3월 모바일 사용자 수가 2012년 말의 2억 명에서 3억 명으로 증가함
- 이 외에도 야후의 입사 지원자 수가 일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증가하고 이 직률이 줄어드는 등 야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

## **Free Exchange: Shocks and Ores**

\* 기사출처: [The Economist \(2013.06.06\)](#)

\* 요약자: 조창우 (cwslam@hanyang.ac.kr)

\* 키워드: 수퍼사이클, 가격신호, 자원

“자원 가격의 급등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”



□ 역사적으로 자원고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자들의 서로 다른 예측이 공존해 왔음

- 1968년, 멜서스 학파의 파울 에를리히(Paul Ehrlich)는 저서 '인구 폭탄'에서 지속적인 자원 고갈은 가격을 상승시켜 기근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
- 1980년에 반대진영의 경제학자인 줄리안 사이먼(Julian Simon)은 10년 후 상품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선언했고, 이는 이후 사실로 증명됨
-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자원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, 가격압력이 우리 삶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
□ 경제학자 데이빗 잭스(David Jacks)의 연구에 따르면, 자원의 가격은 장기적인 관점

## 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판명

- 주요 부문에서 1900년 이후 252%, 1950년 이후 192%의 물가상승이 나타남
- 특히, 미네랄과 천연 가스, 에너지 관련 자원은 1950년 이후 300% 이상 급등함
- 반면 곡물 등의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
  - 세계 인구의 증가율에 비해 곡물 생산율이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

## □ 잭스는 '수퍼사이클(Supercycle)'로 불리는 중기적 자원가격의 변동이 하나의 추세로서 존재한다고 주장

- 수퍼사이클은 40년 내외로 진행되는 하나의 트렌드로,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인 추세와 20%이상 차이 나는 현상을 의미
- 이는, 특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 사회변동의 영향으로 일어날 경향이 높음
- 1890년대의 미국과 2000년대의 중국에서 석유, 철광석, 쇠고기 등의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수요 증가 혹은 이후의 급격한 수요 감소로 발생한 사례도 있음

## □ 잭스의 통계에 따르면 수퍼사이클은 전세계적으로 다섯 번에 걸쳐 발생

- 1890년대, 1930년대, 1960년대 수퍼사이클의 시작을 기점으로, 1910년대, 1950년대, 1970년대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음
- 가장 최근에는 1994년과 1999년 신흥 아시아 시장의 등장으로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자원가격의 상승을 보임
- 통계적으로 이러한 수퍼사이클은 20년째를 기점으로 가격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함
  - 자원가격 하락의 원인은 수요의 감소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, 기술발전으로 인한 대체자원의 발견으로도 발생

## □ 한편, 장기적인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곡물자원의 가격상승 또한 미래에는 인류에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됨

- 1950년을 기점으로 전세계 인구수는 2.8배 늘어난 반면, 곡물 수확량은 3.5배 증가하며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
- 그러나 곡물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  - 생산력 증가에 필요한 인산염의 고갈로 인해 곡물생산량의 증가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

□ 이에 대한 반발로 긍정주의자들은 가격신호(price signal)의 힘이 곡물 가격을 적정선에서 조절해 줄 것으로 예상함

- 기존 농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곡물가격 때문에 폐기물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
- 그러나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생산자들은 곡물, 토지, 폐기물에 대한 태도를 개선 할 것이고, 이러한 변화는 가격신호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됨

□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초단기적인 가격변동은 세계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

- 기존 슈퍼사이클보다 훨씬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상품들이 잭스의 통계에서 발견됨
  - 역사적으로 140회의 가격급등과 135회의 가격폭락의 예를 찾을 수 있는데, 현재는 금, 구리, 옥수수의 가격 등락이 가파르게 진행됨
- 이러한 초단기 가격변동은 장기적인 트렌드와는 50~100%의 가격차이를 보이고, 2007~2008년의 유가급등 사례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
- 멜서스 학파의 주장과는 달리, 오히려 초단기적 가격변동이 인류사회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
  - 멜서스 학파는 인류의 재앙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많은 기아의 등장이라고 주장 **FBI**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윙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